

지역 건설사 공격적 인수합병 藥될까 毒될까

호반, 울트라건설 본계약 '토건 중심 사업 재편' 세운, 시공능력평가 44위 극동건설 인수 의사 신 성장동력 vs 부실 초래... 지역 경제계 주목

동부건설과 경남기업 등 중견건설사들이 마물로 나와 인수합병(M&A) 시장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중견 건설사들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인수합병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 분위기에 자칫 부실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 지역 경제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인수합병을 통해 업종 다각화에 나선 호반건설은 토목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울트라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울트라건설은 1965년 설립돼 토목, 관

급 주택건설 도급사업이 주력인 중견건설업체로 2014년 연간 매출의 약 82%를 관급공사로 달성했다.

호반건설은 최근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금호산업과 동부건설 등 굵직한 건설업체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여왔다. 동부건설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았지만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반건설, 호반건설주택, 호반건설산업, 호반베르디움 등 4개 건설법인의 각 연결기준 매출액 합계는 3조908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의 경우 4개 법인은 작년 5275억원을 거뒀으며 이는 현대건설(5840억원)에 이어 업계

2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굵직한 건설업체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점을 보이고 있는 주택사업이 최근 침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호반건설은 기존 지역 아파트 건설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토목 등 사업다각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왔다”며 “최근 울트라건설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향후 굵직한 건설업체 인수로 시공능력평가액 탑 10 진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의 세운건설도 인수합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995년 설립한 세운건설은 지난 2012년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0배가 넘는 규모의 금광기업을 인수한데 이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9위의 남광토건을 320억원에 사들였다.

최근에는 충북 공주에 본사를 둔 시공

능력평가 44위인 극동건설과도 채무조정을 조건으로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극동건설 일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세운건설이 금광기업·남광토건·극동건설까지 모두 인수하면 시공능력평가액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3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사로 올라설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기업인수 합병은 최대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업인수가 결과적으로 득이 될지 실로 돌아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7.91 (+0.92)	금리 (국고채 3년) 1.44% (0.00)
↓ 코스닥 701.46 (-2.91)	↑ 환율 (USD) 1179.70원 (+8.30)

예대 금리차 1%대... 16년만에 최저

지난해 1.97%P... 광주은행 2.44%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예대 금리 차이가 역대 최저 수준인 1%포인트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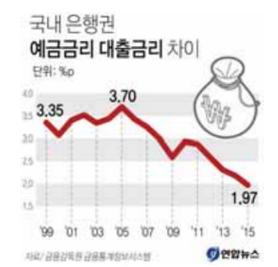
예대 금리 차이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작년 말 국내 은행권의 원화 예대 금리 차이는 1.97%포인트(이하 연말 기준)로 전년 말인 2014년(2.18%포인트)보다 0.2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1999년 이후 3%포인트대를 유지하던 예대 금리 차이는 지난 2008년 2.99%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2%포인트대에 진입했다.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처음으로 1%포인트대에 진입한 것이다.

작년 원화 예대금리(대출채권 평균이자율)는 은행 평균 연 3.62%로, 역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대출금리는 1999년 10.65%를 보이다가 지난 2010년 이후 5%대로 떨어졌고, 2014년까지 4%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3%대로 주저앉았다. 예금금리인 원화 예수금 평균이자율도 작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했다. 예금금리는 2011년 5~7%에 이르던 고공행진을 마무리한 후 2003년~2014년 2~4%를 오르내리다 작년 처음으로 1.65%를 기록하며 1%대로 급락했다.

예대금리차를 은행 종류별로 보면, 작년 시중은행 평균이 1.79%포인트로 가



장 낮았다. 한국씨티은행(3.27%p)과 SC제일은행(2.50%p)이 평균을 끌어올렸으나 4대 시중은행이 은행권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활동성 고객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1.79%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지방은행의 예대 금리 차 평균은 2.47%포인트다. 전북은행이 2.72%포인트로 가장 컸고, 광주은행은 2.44%포인트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그나마 지방은행 가운데 고객을 위한 경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은행권은 수수료 사업에 매진했다. 작년 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은 7조451억원으로, 지난해 2012년 이후 3년 만에 7조원대를 넘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한전, 재난대응 훈련

20일까지 현장 메뉴얼 점검 등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맞춰 전력분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종합 훈련을 실시한다.

한전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지휘체계 확립 및 시스템 활용능력 배양' '재난대응메뉴얼 점검' '전력공급 중단 위기 시 조동 대응 강화 및 대국민 체감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훈련 첫 날인 16일에는 비상발령 및 응소훈련을 시작으로 제401차 민방위 날 대피 훈련 시행했고, 서부발전(충남 태안 소재) 안전체결장에서는 한전 본사 직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전국 군산 임시 훈련장에서는 대규모 재난에 따른 전력설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종합훈련이 실시됐고, 본사 로비에서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장', '재난복구장비 전시회' 등을 마련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됐다. 한편 한전은 전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 출퇴근시간에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등 40개 역사 주변에서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홍보 캠페인(팝플리 배부)을 시행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산·양산 겸용으로 쓰세요” 번덕스런 날씨와 자외선이 강한 요즘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패션아이템으로도 손색없는 우양산(우산 겸 양산)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잡화 코너에서 고객이 우양산을 살펴보고 있다.

“車 100만대 생산도시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를”

광주상의 등 지역 경제단체 3곳 호소문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 등 3개 지역 경제단체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호소했다.

광주상의,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지난 13일자로 공동 호소문을 내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이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침체된 국가 제조업의 재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지역 경제계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 및 우수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

유망 중소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창업 7년 미만으로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성장가능성이 높은 성공창업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무담보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정여건이 열악해 기업융자를 받고자 해도 담보조건 부적합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공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해 무담보 직접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지원한도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1억원 내외에서 지원되며 대출금리 3.28~3.9%(분기변동)에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자기진단 및 상담을 통해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0-30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아티스트,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승구 70m 해니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진

시술후

시술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민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大山프리모남가발